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1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 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 3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 4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 2 이 세상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삼시다
 - 4 주께서 심판 하실 때 잘했다 칭찬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삼시다
-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탄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 담당

7/8(화)	7/9(수)	7/10(목)	7/11(금)	7/12(토)	7/14(월)
이철용 안수집사	구성수 안수집사	이형수 안수집사	권인영 안수집사	전종우 안수집사	김근홍 재적안수집사

2025년 7월 9일(수)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신기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425장 다 함 께
기 도 구성수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베드로후서 2:4~9 인 도 자
찬 송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새벽찬양대
설 교 『사랑과 공의, 균형 잡힌 믿음』 이신기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325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베드로후서 2:4~9 >

4)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참고구절 <베드로후서 3:4>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5년 7월 9일(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거룩한 삶을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다음세대가 단절될 위기에 놓인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문안교회가 복음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현재 진행 중인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윗세대의 신앙이 다음세대에게 온전히 전수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께 영육 간 강건함을 더하시고, 쉼의 시간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상에 있는 교우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있는 자녀들의 하루도 지켜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더위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교회가 사랑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